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8호 2026년 4월 26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부활 제4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독서 : 사도행전 2,14ㄱ.36-41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2독서 : 베드로 1서 2,20ㄴ-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 요한 10,1-10
--	--

성가 ▶ 입당: 55 ▶ 봉헌: 347, 213 ▶ 성체: 156 ▶ 파견: 55



사목공지

- ① 4월 26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5월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5월 봉성체 안내
5월 봉성체는 5월 21일(목, 오전) 서쪽 지역, 5월 22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4월 19일~25일)
- ⑤ 매월 넷째 주 4월 25일(토), 26일(일) '한끼 나눔'
- ⑥ 성지순례 안내: 4월 26일(일) ~ 5월 1일(금) 평일미사 없음
- ⑦ 5월 7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특별공지

[하와이 코나 로우(Kona Low) 폭풍 피해 복구 특별 모금]

코나 로우 폭풍으로 수해를 입은 하와이 여러 본당과 가톨릭 학교 복구를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합니다. 하와이 가톨릭 커뮤니티 재단을 통한 신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 참여 링크 (Hawaii Catholic Community Foundation)

<https://www.hawaiicatholiccommunityfoundation.org/support-flood-relief-efforts/>



구역 및 단체

- ①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4월 25일(토) 오후 5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 ②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4월 25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 ③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4월 25일(토) 오후 6시
장소: 김글라라 349-2654
- ④ 성모회 모임
일시: 4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⑤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5월 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⑥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5월 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⑦ 가이무키 구역모임
일시: 5월 10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 ⑧ 솔릭 구역 모임
일시: 5월 12일(화) 오후3:30
문의: 이명노 비오

※ 제10차 성령 쇄신 세미나 안내문

기타공지

일시	2026년 5월 22일(금) ~ 5월 24일(일) 5월 22일(금): 16:00-22:00, 5월 23일(토): 10:00-22:00 5월 24일(일): 12:00-19:00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신자분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지도신부님	김현우(바오로) 신부님 (인천교구 해양사목국 부국장)
대상	모든 교우분 (참가비 1인당 \$70)
문의	미사 전, 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성모의 밤 꽃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마우나케아 소공동체, 김수정 카타리나



헌금

5월 16/17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4월 17일 / 4월 18일: \$5,363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259명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2,883	\$2,190	\$290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 말씀 전례 (10) 말씀 전례 중 강론 (2)

미사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을 흠송하고, 나아가 하느님 백성들이 성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특별히 미사 중, 강론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에서 강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강론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연설문이 아닌, 전례 안에서의 중요한 예식으로써 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론에 대한 유의사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가 해야 합니다.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가 한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 신자에게 강론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관행은 버려야 하며, 관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미사 중에 평신도에게 설교를 금지하는 것은 신학생이나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이른바 ‘사목 협조자’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어떤 다른 부류의 평신도나 단체, 공동체, 협회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6항; 구원의 성사 65, 66항)”.

위 지침에 따르면, 거룩한 미사 거행 중에 하는 강론은 주례 사제 또는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부제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강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 주일 때 사목 회장이 강론을 대신하거나, 주일학교 미사 중에 교리 교사들이 강론을 하는 모습들은 이러한 전례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강론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은 전례 정신에 어긋납니다. 종종 교우분들께서 어느 사제의 강론을 평가하거나, 강론을 통해서 사제의 자질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례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강론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하느님 말씀을 통해 경청하고, 하느님 말씀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전례의 예식이 인간적인 판단에 맡겨질 경우, 하느님의 말씀이 배제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강론을 바라보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곧, 전례 안의 또 다른 예식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의 일상 안에 다가오는 “말씀의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하고, 강론 후에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침묵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한 하느님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강론 시간을 보낸다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성경구절은 현재가 될 것입니다.



알아둡시다

※ 부활 4주일 강론 요약본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찢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의 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2독서의 표현처럼 쉽게 길을 잃는 존재입니다. 욕심과 두려움, 세상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온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하느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직 그분뿐임을 밝히십니다. 세상의 여러 목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결국 지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며 생명으로 이끕니다. 신앙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회개하여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둘째,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실제로 돌아가는 것, 셋째, 그분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된 생명과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